

# 웃으로 선화를 칠했네

## 범주 스님 5월 20~26일 한국갤러리서 '칠선화' 첫 발표

오랫동안 선묵일여를 추구하며 달마도 선화 수행정진을 해온 범주(梵舟) 스님이 5월 20~26일 서울 인사동 한국갤러리에서 '칠선화(漆禪畫)' 발표회를 갖는다. '칠선화'는 먹물도 그린 선화에 역사상 최고의 생활재료인 웃칠을 접목해 새롭게 선보이는 화법이다.

웃칠은 팔만대장경, 등신불 등을 천년 이상 보존할 정도로 방충(防蟲), 방균(防菌), 방습(防濕), 방산성(防酸性), 내구성(耐久性)과 원적의선 방출효과로 가장 오래 보존되는 물질이다. 범주 스님은 지난 2년간 선화(禪畵)의 정신성과 웃칠의 표현성을 웃칠선화 즉, 칠선화(漆禪畵)로 접목해 왔다. 35년간의 선수행이 고스란히 담겨져 자손대대로 집안을 밝힐 수 있는 최상의 선화(禪畵)를 만들고 싶어하였다. 그 결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칠선화'라는 새로운 미술의 장르가 탄생된 것.

100% 천연의 먹지와 생칠을 사용해 짙은 밤색의 오래된 고화(古畵)같은 느낌이 연출되는 칠선화는 그 제작 과정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범주 스님은 "참선 수행자의 밝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화라면, 거기에 천년을 가는 웃칠을 더해 대대손손 밝은 기운을 비추게 하는 작업이 칠선화"라면서, "종이를 스치기만 해도 웃이 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한데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고된 수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웃나무를 굽으면 나오는 즙, 즉 생칠을 이용해 웃칠을 만들어 건조시킨 후 그 웃칠이 위에 선화를 그리고 표구용 천과 액자



상주 달마선문화예술원에서 정진 중인 범주 스님과 '나무 달마도'.

테두리에도 웃칠을 들여서 완성한다. 범주 스님이 어렵게 장안한 칠선화에 대해 웃 장인들의 평가도 긍정적이다.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이철룡 회장은 "웃 오름(漆)의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오로지 부처님 가르침을 천년 한지에 만년 웃의 토대를 세워 '천년 달마도'인 칠선화를 완성시켜 공개발표 전시회를 갖게 된 것은 독창적인 칠묵화(漆墨畵)를 탄생시킨 것"

이라고 평했다.

지난 25년간 선묵화(禪墨畵)를 연구하며 현장에서 커다란 붓으로 거침없이 그려내는 범주 스님의 '선화 퍼포먼스'는 선적 감화력으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남아있다. 이번엔 선보이는 스님의 칠선화는 선차(禪茶)를 주제로 한 '선다화(禪茶畵)'를 특징으로 한다. 20일 오후 3시 '선 퍼포먼스'로 시작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칠선다화(漆禪茶畵) 100여점과 선다기(禪茶壺) 50여점이 전시되며, 이 모두를 담은 칠선화집(漆禪畵集)도 발간된다. 아울러 스님은 웃칠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위한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범주 스님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선(禪)과 예술을 하나로 하는 선(禪) 공부를 하기 위해 24세 때 경허, 만공 스님의 선맥을 이은 인천 용화사 조실 전강 선사에게 출가했다. 인생을 보다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했고, 선악(善惡)이 일어나기 전의 절대 자리를 깨닫고 싶었다. 그래서 본래 나의 본성 자리, 우주와 진리의 자리, 한 생각 이전의 자리, 그것이 선(禪)임을 체험했고, 선수행의 정도에 따라 마음이 맑아질수록 의식이 밝아지고 자비와 사랑이 커졌다고 느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한산수묵도, 산수도 등의 선묵화를 통해 수행의 밝고 맑은 기운을 대중에게 전하는 범주 스님. 이번 선칠화전은 스님의 선예술이 독창적인 기법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불교미술의 수준을 국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감이 높다. (02)720-1161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문수보살 마음으로 바라보는 세상

## 수안 스님 13~26일 토포하우스서 11년만에 그림전

"마음을 비우면(空) 이 세상 모두가 극락세계임을 확신할 것입니다. 진실과 희망, 그리고 환희를 우리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은 곧 천진무구한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이며, 그것이 곧 문수보살의 마음이기도 하다. 수안 스님(통도사 문수원의 법명인 '수안(殊眼)'은 반야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문수보살의 심안(心眼)을 뜻한다. 수안 스님의 그림은 바로 문수보살의 눈으로 본 반야와 열반의 세계를 표현함이다.

천진무구한 동지들의 밝은 얼굴을 통해 해탈과 법열의 경지를 표현해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대표적 선(禪)화가 수안 스님이 세속 나이 일흔을 맞아 11년 만에 그림전을 연다. 5월 13~26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여는 전시회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와 선화, 전각이 함께 어우러진 스님의 최신판 80여점을 만날 수 있다. 평소 좋아하는 천진무구한 아이들, 색깔고운 예쁜 꽃, 날개를 힘껏 펼치는 학 등 최근작 선화와 전각그림 등이 더욱 깊고 맑은 빛깔을 드러낸다.

"요즘 세상이 사상이든 물질이든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어. 다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든 물이든 다같이 나눠야 합니다. 그림은 골방에서 그리지만 나눔은 밝은 곳에 우리 이웃과 함께 하고 싶어서 전시회를 열었



마음의 눈으로 선화를 그리는 수안 스님의 작품.

습니다."

살 한톨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번 전시 개막 때인 13일 오후 6시 '수안 스님 인보집' 출판기념회도 함께 연다. 반야심경과 인불(부처 전각, 선(禪) 시구 등이 담겨 있는 200쪽 분량으로 스님이 전각집을 내고 전시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를 끝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변호사협회 초청으로 해외 전시회도 계획하고 있다.

수안 스님은 1940년 통영에서 태어나 17세 때 석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4년 월하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하고 이후 통도사, 송광사, 백련사, 묘관음사 등에서 안거를 냈다. 이러한 수행력을 바탕으로 스님은 1977년 이리역 폭발사건 이재민돕기 선묵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50여회의 전시회를 가지면서 말과 생각이 깊어진 선(禪)의 세계를 그림으로 전해왔다. 32년이 지난 지금 스님은 중국과 러시아, 유럽, 남미 등지에서 수차례 초대전을 가질 만큼 선화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명성과 명예를 쫓지 않고 막힘 없고 가식 없는 선화를 그려왔다. 최근 들어서는 불우아동돕기 행사 등 어린이 관련 행사 외에는 되도록 암자 밖으로 나오지 않고 참선과 더불어 시와 그림으로 수연행(隨緣行)을 하고 있다. (02)734-7555 김성우 기자

## 펜으로 살아난 전통건축

### 국립청주박물관 '봄문화축제' 특별전서

국립청주박물관(관장 김성명)은 5월 24일까지 제5회 봄문화축제의 특별전으로 '펜화로 만나는 한국 전통건축의 아름다움'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펜화가 김영택 선생이 지난 십 여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건축물과 산수를 오롯이 담아낸 펜화 60여 점이 선보인다.

2008년 2월 뜻하지 않은 화재로 그 원형을 많이 잃어버린 국보 1호 송례문의 1900년 무렵의 모습을 비롯해 금강산 보덕암, 속리산 범주사 팔상전, 진천 보탑사, 봉정암과 경북권 정문인 광화문의 1890년 경 모습, 창덕궁 부용정, 밀양 영남루, 대전 남강정사 등 우리 땅의 궁궐·문루(門樓)·사찰·정각(亭閣)·집과 정원 등이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수십만 번의 선을 그어 완성한 작가의 펜화는 치밀하고 정교해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아주 가느다란 선을 거듭하고 거듭해 이루어낸 정밀한 풍경에는 흑백사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스함과 더불어 우리 건축물 특유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평이다. 김성우 기자

## 대한민국 차인 다 모여

### 19~24일 대흥사서 차인대회

해남 대흥사와 해남군은 5월 19~24일 한국차의 성지 조계종 제22 교구본사 대흥사에서 차 애호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차인대회'를 연다.

이 대회는 한국차문화협회, 전국차인연합회 등 40여 개 차 관련 단체와 원로 차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차인대회.

대회는 19일 대흥사 초의관 전시실에서 차 도구 유품전 개막을 시작으로 증경작가 도예전과 대한민국 차 공예 명장전 등이 이어지며, 23~24일 본행사 기간에는 '다약제'와 '전국 차장 차례복 경연대회', 원로차인 차 도구 소장품 경매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전국 15개 차 모임이 참여해 차 음식을 경연하는 '다찬회'와 백련사, 도감사와 미황사, 일지암 등 대흥사 산하 암자 및 말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사찰 차회의 대규모 찾차리도 이번 대회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흥사와 해남군은 대회기간인 23일과 24일 대흥사 경내에서 녹차 만들기 체험 등의 '제18회 초의문화제'도 함께 가질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 홍순지씨 '경허-깨달음의 노래' 출판

### 명상음악 '경허 선사' 등 10곡 수록

명상음악가 홍순지씨가 근현대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1849~1912)의 선시를 가사로 엮은 앨범 '鏡虛(경허)-깨달음의 노래'를 최근 출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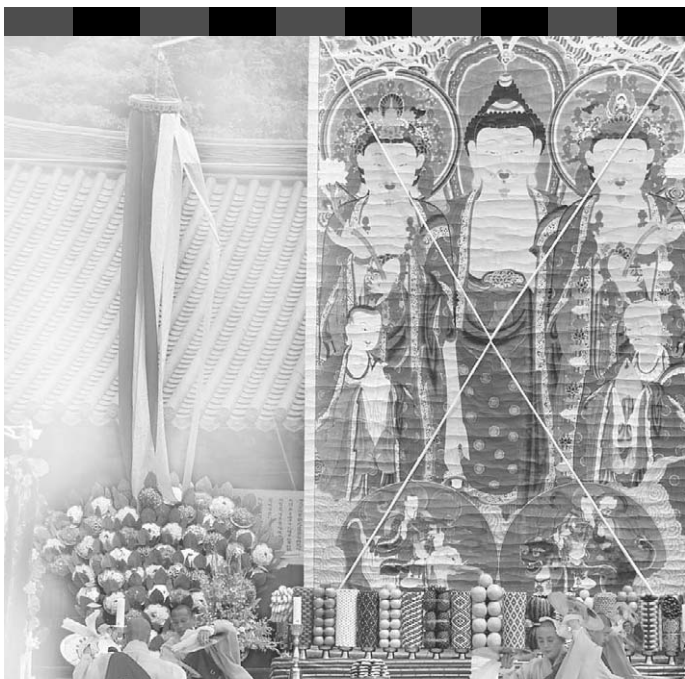
이번 앨범에는 '유정강에서' '만행' '그 어느 산 맑고 그윽한 곳에' '여정' '흰 구름 깊은 품에' '은선동에 노닐며' '화엄사 가는 길' '금산 보석사에서' 등 경허 스님

이 쓴 선시를 가사로 삼은 9곡과 스님의 수제자 만공 스님의 시 '경허 선사' 등을 포함해 모두 10곡이 수록돼 있다.

홍순지씨의 청아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이번 앨범의 작곡은 선(禪) 음악전문가 백영운씨가 맡았다. 백영운씨는 "경허 스님의 한시를 풀어 가사로 다듬었고, 편안하고 친숙한 멜로디를 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제,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031)836-0477 / 010-4111-7523

#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